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70期(2025.12.26) WWW.MINGHUI.ORG

한글판 1034호 minghui.or.kr



▲ 제7회 콜롬비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득교류회가 툰하(Tunja)시에서 열리기 하루 전인 2025년 11월 1일, 콜롬비아 각 도시와 지역에서 온 일부 수련자들이 툰하시에 모여 여러 활동을 열고 시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주요내용

- 【중국소식】 파룬궁 박해한 중공 사법부장 3명 잇따라 응보
- 【수련교류】 지역 박해를 폭로하는 용어 사용에서 세인의 관념을 바꾸는 데 주의하자
- 【수련교류】 ‘자기도 모르게’라는 말에서 생각난 것
- 【수련교류】 베트남 수련생들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 【시사평론】 마이다네크 강제수용소에서 ‘문화대혁명 박물관’까지

〈목 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파룬궁 박해한 중공 사법부장 3명 잇따라 응보 11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3

■ 수련교류

지역 박해를 폭로하는 용어 사용에서 세인의 관념을 바꾸는 데 주의하자 18

‘자기도 모르게’라는 말에서 생각난 것 20

베트남 수련생들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22

법을 스승으로 삼아 심성 수련을 배우다 28

중국 수련자는 해외 1인 미디어의 정사(正邪)를 분명히 식별해야 ... 30

마음속에 ‘나’는 없고, 눈에는 온통 중생뿐 34

한 차례 고비를 넘는 과정에서 구세력의 개입을 보다 45

어떻게 자신을 계속 정념 상태에 있게 할 것인가 53

■ 시사평론

마이다네크 강제수용소에서 ‘문화대혁명 박물관’까지 59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2월 13일 이른 아침, 대만 가오슝 지역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가오슝 링야구 운동공원에 모여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 새해 인사를 올렸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와 반본귀진(返本歸真)의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수련자들은 한목소리로 “사부님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라고 외쳤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수련자가 대법의 가호로 얻은 체험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생명을 다시 만들어 주신 사부님의 크나큰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렸다.

12월 21일 오전 8시 30분, 대만 북서부 타오위안시, 신주시, 신주현, 먀오리현 4개 현·시[약칭 타오주먀오]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수련자들이 주베이 문화공원에 모여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즐거운 새해를 기원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모두가 두 손을 합장하고 다 함께 외쳤다. “사존께서 새해 즐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새해인사를 드린 후, 수련자들은 함께 단체 법공부를 하고 수련 심득을 교류하며 정진실수(精進實修)할 것을 서로 격려했다.

12월 14일 타이베이 파룬궁수련자가 신베이시 반차오 구청 강당에서 단체 법공부와 교류를 진행하며 선원(神韻) 홍보와 심성제고에 관한 수련 심득을 나눴다. 정오가 되자 수련자들은 대형 현수막을 펼쳐 들고 사부님께 세배를 드렸다. “사부님께 새해인사 올립니다!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

12월 20일, 파룬궁수련자로 구성된 파룬따파 천국악단이 제33회 ‘자이시 국제관악제’ 거리 퍼레이드에 성대하게 등장했다. 천국악단은 이미 10여 년 연속 관악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음악 소리로 가장 주목받는 초점이 됐다. 천국악단이 입장할 때 주최 측은 열정적으로 소개했다. “파룬따파 천국악단의 훌륭하고 눈부시며 웅장하고 기세 드높은 연주와 일사불란한 대열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신념하에 순정(純淨)하고 밝으며 바른 에너지로 가득 찬 음악 소리를 통해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사회와 세계에 나누고 있습니다.” 파룬따파 천국악단은 기세가 웅장하고 음악 소리가 우렁차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으며, 관중들은 잇달아 카메라를 들어 기록하고 열정적으로 단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12월 20일, 캐나다 토론토의 대법제자들이 토론토 시청에 모여 사부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사부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렸다.

2025년 11월 2일, 제7회 콜롬비아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콜롬비아 툰하(Tunja)시 보야카 클럽(Club Boyacá)에서 개최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총 34명의 수련자가 자신의 수련심득을 발표했다. 그들은 집착과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사회에서 도덕적 품성을 높인 과정과 중국공산당(중공)이 중국에서 저지르는 파룬궁 박해 진상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겪은 경험들을 공유했다. 교육 컨설턴트인 산드라(Sandra)는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녀는 이 수련의 길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묘사했다. 그녀는 처음 대법을 접했을 때의 충격을 떠올리며 “이것은 영광입니다. 처음 연공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파룬궁’ 서적을 단 나흘 만에 다 읽었다며 “도저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멈출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전법륜(轉法輪)’을 읽을 때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12월 10일, 13일, 14일, 뉴질랜드 파룬궁 단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파파토에토에(Papatoetoe) 지역, 모린스빌(Morrinsville), 카피티 코스트(Kapiti Coast) 및 웰링턴의 어퍼헛(Upper Hutt) 지역을 포함한 4개의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파룬궁수련자들은 남북섬에서 총 20회의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참가했으며, 그들은 중국 전통 복장, 심금을 울리는 악곡 및 평화로운 에너지로 수만 명의 관중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 짙은 명절 분위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현지 관중들의 진심 어린 찬사를 받았다. 뉴질랜드 시민들은 파룬따파의 진선인 가치관에 공감하고 찬사를 보냈다.

카피티 코스트 퍼레이드에서 국회의원 팀 코스텔리(Tim Costley)의 크리스마스 꽃차는 파룬따파 단체 행렬 바로 앞에 있었다. 그는 천국악단이 채택한 푸른색 테마를 매우 좋아한다며 “저는 파란색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의 전체적인 색채가 매우 조화롭고 아주 통일돼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파룬따파가 ‘진선인’을 핵심 가치로 하는 심신 수련 공법임을 알게 됐을 때 코스텔리는 “이것들은 모두 아주 좋은 가치관이며 사람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품성입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텔리는 파룬따파 단체의 방문을 환영하며, 여러분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휴가를 보내며 이 도시의 아름다움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느껴보라고 열정적으로 초

대했다.

‘국제 인권의 날’(12월 10일)을 전후해 48개국 파룬궁수련자가 또 한 차례 중공의 박해 가담자 명단을 자국 정부에 제출해, 법에 따라 악인과 그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중공 악당의 파룬궁 박해는 이미 26년에 달한다. 각국 정부와 인권 단체는 갈수록 이 박해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중공의 반인류적 본질과 각국에 대한 위해를 갈수록 많이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일부 정계 인사들은 파룬궁수련자가 겪는 박해가 장기간 무시됐으며, 파룬궁이야말로 중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박해받는 단체라고 갈수록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 밤, 영국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런던 중공 대사관 맞은편에서 촛불 추모와 평화로운 박해 반대 활동을 진행했다. 영국 정부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과학·혁신·기술부장관으로 공동 임명된 이언 머리(Ian Murray) 국무장관은 서한을 보내, 파룬궁수련자가 겪고 있는 박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당신이 묘사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학대 상황은 매우 깊은 불안을 줍니다. 신앙과 양심 그리고 평화로운 수련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이러한 권리가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박탈되는 상황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로서 우리는 이미 영국이 공개적이고 비공개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중대한 인권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또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책임 추궁을 추진할 것입니다. 동맹국과 기타 입법 기관들이 이러한 침해 행위를 드러내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표적화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환영합니다.”

영국 인도태평양 담당 및 평등 담당 장관 시마 말호트라

(Seema Malhotra) 장관이 12월 18일,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스티븐 도티(Stephen Doughty) 씨에게 서한을 보내 외교부에 제기한 그의 질의에 답변했다. 그녀는 서한에서 “중국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환경은 매우 심각합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종교 또는 신앙 자유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전념하며, 국제사회에서 이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그녀는 “총리부터 정부 각급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는 외교적 접촉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거듭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12월 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인근 도시의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도심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기차역에서 도심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광장에 파룬궁수련자들이 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세워 행인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파룬궁 공법을 시연했다. 회색빛 겨울 풍경 속에서 노란색 대형 현수막은 유난히 눈에 띄었고, 위에는 중국어와 독일어로 “세계는 진선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쓰여 있어 많은 행인의 눈길을 끌었다. 다른 쪽에 있는 4미터 길이의 현수막에는 사진과 영문 정보가 있어 중공의 구체적인 파룬궁 박해 사례를 설명하고, 중공이 조작한 이른바 ‘천안문 분신자살’의 진상을 폭로했다.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 당일, 불가리아 파룬따파 학회는 소피아에서 행사를 개최해, 중국에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했다. 불가리아 온라인 매체 (NewsNow.bg)는 이 행사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소피아의

이 행사는 이런 박해를 널리 알리고,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중국에서 발생한 반인류 범죄를 규탄하도록 호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파룬따파) 학회는 (파룬따파) 이 공법의 수련 원칙인 진선인이 그들 평화적 행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에 12월 8일, 불가리아 파룬궁수련자들은 ‘장기적출을 위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자 학살 저지’를 주제로 차량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차량 행렬은 경찰차의 호송 하에 소피아 시내 중심의 넓은 주요 도로를 따라 주행했으며,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각료회의 건물 앞의 ‘권력 삼각지대’에서 30분간 머물렀다.

12월 9일, 불가리아 수련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소피아 주재 중공 대사관 앞에서 평화 항의 행사를 개최했다. 수련자들은 현수막을 들고 중공이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자의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하는 범죄를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흑한을 무릅쓰고 파룬따파 공법을 시연했으며, 또 일부 수련자는 중공 대사관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렸다.

3일간 열린 프랑스 레위니옹 섬의 ‘노인 박람회(Salon des seniors)’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생드니의 오귀스트 르그로 전시·회의 센터에서 개최됐다. 파룬따파 수련자들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부스를 마련해 시민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폭로했다. 많은 관람객은 신앙을 지키는 수련자들의 정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50세 레위니옹 주민 애니는 박람회를 관람하다가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이 겪은 박해 경험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프랑스와 중국 수련자 여러 명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고, 오늘날 사회에서 강제 생체

장기적출과 같은 죄악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녀는 현장 부스에서 생체 장기적출 반대 청원서(fohpetition.org)에 서명하며 즉각적인 만행 중단을 호소했고, 파룬따파 공법을 배우러 오겠다고 밝혔다.

12월 13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일부 파룬궁수련자는 국립기념탑 입구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립기념탑은 자카르타 주요 관광지 중 하나다. 수련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박해 반대 현수막을 펼치고 실제 사람이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생체 장기적출을 연출했으며, 시민에게 전단지를 배포해 중공이 지속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진상을 폭로했다. 감비르(Gambir)구 경찰서 부서장이자 경무관인 드위 하르보워(Dwi Harbowo)도 파룬궁수련자의 안내 부스 앞으로 와서, 근무 중인 경찰이 수련자들의 활동을 위해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며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한 수련자와 대화할 때, 근무 중인 한 경찰은 “공산주의는 세계 평화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는 점에 찬성을 표했다.

12월 12일,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주도 수라바야시의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수라바야 중국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수련자들은 박해 반대 현수막을 들고 행인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렸다.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인도 카르나타카주 원예부가 방갈로르 쿠번 공원에서 꽃박람회를 11일간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유명한 연례 랄바그 꽃박람회를 본떠 기획됐다. 현지 파룬궁수련자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초청받아 박람회에 참가했으며 방문객에게 수련 공법을 공유했다. 산토시(Santhosh)는 파룬궁수련자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수련자의 활동을 긍정하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위대한 선행입니다.” 그는 수련자가 지키는 고귀한 도덕 기준에 경의를 표했다. 또 다른 관람객 비핀(Vipin)은 수련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을 방문해 동료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 파룬따파 불학회(佛學會)는 분기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9일간의 파룬궁 공법교육반(9일 학습반)을 개최했다. 이번 9일 학습반에서는 시민들을 초청해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님의 설법 영상을 시청하고, 참가자들에게 파룬궁 공법을 무료로 가르쳤다.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말레이시아 남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조호르주 쿨라이에서 9일간 파룬궁 학습반을 개최했다.

파룬궁 박해한 중공 사법부장 3명 잇따라 응보

[명혜망](명혜주보 중국판 종합보도) 중국공산당(중공)의 사법부장 3명이 연속으로 낙마했다.

3대 탕이쥘(唐一軍): 2024년 4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공 랴오닝성 성장, 2020년 4월부터 2023년 초까지 중공 사법부장을 역임한 탕이쥘은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공직과 당적을 박탈당했고, 중공 최고인민검찰원에 체포됐다. 2025년 2월 샤먼시에서 기소됐다.

2대 푸정화(傅政華): 푸정화(허베이 환현 출신)는 베이징대학 분교 법률전공을 졸업하고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중공중앙정법위 위원, 파룬궁 박해를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된 ‘중앙문혁소조’인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주임(장관급)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공 사법부장을 맡았다. 2021년 10월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기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았다. 2022년 3월 ‘쌍개(공직과 당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7월 28일 뇌물수수죄, 순사왕법(徇私枉法, 사적인 정에 끌려 법을 어지럽힘)죄로 지린성 창춘시 중급법원에서 재판받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 중급법원은 뇌물수수죄로 그에게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대 우아이잉(吳愛英): 2002년 3월 중공 산둥성 위원회 부서기를 맡아 오랫동안公安·검찰·법원 업무를 관장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중공 사법부장을 맡았다. 2017년 10월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 3직급 강등되고 당적을 박탈당해 언론으로부터 “법을 모르는 관리”라고 불렸다.

수련계에서는 이들 중공 사법부장 3명이 낙마한 진짜 원인이 재임 기간 파룬궁을 적극적으로 박해했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우아이잉을 예로 들면, 그녀는 중공 사법부를 거의 12년간 주관하며 장파(장쩌민 파벌)가 파룬궁 박해 정책을 실시하는 데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소련에서 계승해 50년간 답습한 ‘노동수용소’ 시스템이 2013년 해체된 후 중공 사법부 산하 감옥은 파룬궁을 감금하고 박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부상했다. 불법 판결을 받은 파룬궁수련자들은 대부분 감옥에 불법 감금돼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수많은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받아 사망하거나 부상, 장애를 입은 사건이 모두 중공의 감옥 시스템 안에서 발생했다. 중공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전제하에 신앙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수련자(70~80세 노인 수련자 포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는 모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610사무실은 정식 명칭이 ‘중앙 사교(邪教) 문제 방법 및 처리 영도소조 사무실’이며 약칭은 ‘중앙방법사무실’로 중공의 장관급 기관이자 중공중앙 직속 기구다. 해외에서 그 죄악이 끊임없이 폭로된 후 610사무실은 통폐합됐지만 그 인원과 기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파룬궁 박해라는 정치 운동이 26년간 지속돼도 멈추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

610사무실은 ‘중공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소조 사무실’로 1999년 6월 10일 설립됐다. 610사무실은 비밀 당무 기구라 은폐와 공개적인 운영에 불리했기에 나중에 ‘국무원 사교 문제 방법 및 처리 사무실’을 설립했다. 이 둘은 같은 약재로 다른 이름의

탕약을 만든 것처럼 하나의 기구에 두 개의 간판을 건 셈이며 ‘중공중앙정법위원회’와 함께 업무를 봤다.

중공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소조 조장은 대부분 중공중앙 정법위 서기가 맡았다. 가장 먼저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란칭(李嵐清)이 중공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소조 조장을 맡았다. 리란칭 이후에는 중공중앙정법위 서기 뤼간(羅幹)이 조장을 맡았다. 610사무실 주임은 공안부 부부장이 맡았다. 파룬궁 박해에 대한 중공의 편집증과 중시하는 정도는 진선인(眞·善·忍) 이념에 대한 중공의 증오, 신앙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중공 자체의 폭력성과 사악한 본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누군가 물었다. “중공 관리들이 파룬궁수련자를 핍박해 가정이 파탄 나고 가족이 사망하고, 죽거나 장애인이 되게 했는데 겨우 낙마한 것으로 응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좋다. 낙마는 확실히 응보의 시작일 뿐이다. 천망회회(天網恢恢,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선악을 빠짐없이 가려냄)하고 신목여전(神目如電, 신의 눈은 번개와 같음)이다. 피에는 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며 18층 지옥의 형벌이 모두 중공의 골수분자와 행동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헤이룽장성 쑤이화시 쑤이령현 파룬궁수련자 리중위안(李忠元), 왕위(王玉), 슈중천(修忠臣), 자오수취안(趙樹全), 장밍(蔣明)이 2025년 5월 10일 납치돼 모함당했고, 10월 16일 하이룬 법원

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다. 리중위안: 징역 5년, 벌금 1만 위안. 왕위: 징역 4년 6개월, 벌금 1만 위안. 슈중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만 위안. 자오수취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만 위안. 장밍: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만 위안.

광둥성 제양시 여성 파룬궁수련자 위안인잉(袁吟英·75)과 정쉐전(鄭雪君·61)은 2024년 5월 9일 경찰에 납치돼 제양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5년 2월 그녀들은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위안인잉은 이른바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수용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고 이후 억울하게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2025년 8월 광둥성 여자 감옥으로 이송돼 박해를 받고 있다. 정쉐전의 구체적인 상황은 현재 조사 중이다.

2024년 5월 13일, 리메이홍은 파룬궁수련자 홍시룽(洪細蓉)과 제시현 허뤄진 허산 주민위원회 부근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허뤄진 파출소 인원에게 납치돼 제양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모함당했다. 2025년 2월, 제둥구 법원은 리메이홍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고 부당한 5년형을 선고했다. 8월, 그녀는 광둥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계속 박해받았다. 이번이 리메이홍이 두 번째로 불법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이다. 2014년 8월 12일 제양시 국가안전국은 제시 공안 및 허뤄진 파출소와 연합해 리메이홍을 납치했으며, 그후 7년형을 불법적으로 판결했다.

구이저우성 카이리시 파룬궁수련자 천귀란(陳國蘭) 약 61세이다. 2024년 12월 4일 저녁 6시, 천귀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복해 있던 정보 경찰에게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했고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2025년 11월 12일 카이리시 법원은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하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현재 천귀란은 항소했다.

구이양시 바이원구에 사는 77세 파룬궁수련자 왕홍편(王洪芬)이 2022년 2월 28일 경찰에 납치됐다가 이후 ‘처분보류’로 귀가했다. 2025년 9월, 왕홍편은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 서명을 거부해 구이양시 난밍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형(감옥 밖 집행)을 선고받았다.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79세 파룬궁수련자 왕텐인(汪天銀)이 2025년 1월, 구이양시 난밍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신체적인 이유로 감옥 밖에서 형을 집행했으나,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5년 9월, 고희의 나이인 왕텐인이 감옥에 납치돼 수감됐다. 이전에 왕텐인은 노동수용소와 감옥에서 총 10년 넘게 박해를 받은 바 있다.

헤이룽장 하얼빈시 상청구 파룬궁수련자 왕수화(王淑華)는 2024년 12월 23일, 성평 파출소(구 차오양향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하얼빈 제2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2025년 9월 19일, 하얼빈시 다오리구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그녀는 같은 해 11월 27일 헤이룽장 여자감옥 집훈대로 납치돼 계속 박해받고 있다.

허베이성 런주시 화베이 유전의 63세 파룬궁수련자 판리핑(潘麗萍)은 2024년 1월 25일 광둥성 후이저우에 있는 자녀를 보러 가기 위해 런추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려다 수색 및 납치됐다. 그녀는 이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의 모함에 빠져 2025년 봄 불법적으로 1년형을 선고받고 허베이 스자좡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런주시 검찰원과

법원은 사건 서류를 거듭 반려했으나 화베이 유전 공안국 보하이 분국 국보대대는 공을 세워 포상받기 위해 집요하게 모함하고 억울한 조작 사건을 만들어 그녀를 억지로 감옥에 보냈다.

간쑤성 진창시 파룬궁수련자 허빙잉(何炳英·65)은 지린성 창춘시 난관(南關)구에 사는 딸의 아이를 돌보러 갔다가 2025년 4월 23일 아침, 난링 파출소 소속 경찰 여러 명이 허빙잉 딸의 집으로 들이닥쳐 허빙잉을 강제로 납치하고 불법 가택수색하고 불법 구류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비밀리에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11월 20일 지린성 창춘시 여자 감옥으로 납치돼 계속 구금 및 박해를 받고 있다. 현재 허빙잉의 건강 상태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쑤성 쑤이닝현의 파룬궁수련자 장부화(張步華·남·70대)는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으로 2024년 6월 추지진 파출소에 납치됐다. 3~4일 후 어느 날 저녁, 그의 집 앞에 경찰차 2~3대가 도착했고 7~8명의 경찰이 그를 집에 내려놓고 서둘러 도망쳤다. 그는 당시 이미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다음 날 새벽 세상을 떠났다. 장부화는 생전에 건강했으며 정상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있었다.

산둥성 라이양시 파룬궁수련자 추칭전(初慶珍)은 2024년 10월 29일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국보 경찰에게 납치됐고 불법 가택수색, 모함을 당했고 2025년 1월 20일 불법 재판관을 받은 뒤 억울하게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남편 쑹쉐춘(宋學春)은 원래 가족 변호인으로서 아내를 변호하려 했으나 재판 당일 아침 집 아래에서 대기하던 국보 경찰에게 납치됐다. 최근 그는 불법적으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

다. 부부가 모두 모함당해 감옥에 갇혀 집에는 돌봄이 필요한 연로한 노인 세 명만 남았다.

산둥성 웨이팡 창이시 파룬궁수련자 장아이룽(張愛榮)은 2022년 6월 25일 이른 아침 경찰에게 불법 가택수색과 강탈, 납치를 당했고 당일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몸 곳곳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 사진 몇 장을 찍어 명혜망에 보냈다. 며칠 후 창이시 국보대대는 인마 파출소 경찰과 합세해 장아이룽을 다시 납치했으며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액체 한 사발을 마시게 했다. 장아이룽은 10일간 감금됐다 돌아온 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으며 결국 2024년 12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지역 박해를 폭로하는 용어 사용에서 세인의 관념을 바꾸는 데 주의하자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명혜간행물 편집부의 ‘명혜주보’ 지방판 편집 요구사항을 본 후, 나는 한 지방 간행물을 다운로드해 참고해 보았다. 그 지역 간행물은 전체 지면이 수련생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만 보도하고 있었으며, 박해 가담자의 구체적인 소속 기관 정보와 개인 정보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세인은 이를 보더라도 정의감이 생기기보다는 두려움이 생겨 대법 진상을 정면으로 공개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며, 심지어 진상과 대법을 접하는 것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명혜주보’ 지방판은 바로 현지의 사악한 박해를 폭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확실히 박해 사례 및 박해 가담자(기관과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기관(가도, 파출소, 공안국, 전화번호 등)의 경찰(성명, 경번, 직함, 나이, 집 주소, 구체적인 근무지 주소, 전화번호 포함)이 어느 곳에서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대법제자(성명, 나이, 직업, 언제 왜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는지)를 박해했는지, 명혜망 악인 명단에 올랐는지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만 비로소 박해를 폭로하고 사악을 제거하며 진상을 명확히 알릴 수 있다. 그래야 세인이 ‘이 경찰은 왜 이렇게 사악할까?’라고 생각하게 되지, ‘절대 파룬궁을 수련하지 말아야겠어. 안 그러면 잡혀가고 매 맞고 벌금 낼 거야’라고 겁먹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많은 수련생이 속인에게 왜 붙잡히고 갇히며 박해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심코 “연공을 해서요”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렇게 하면 속인에게 마치 박해받은 것이 파룬궁을 수련했기 때문이라는 일종의 관념을 형성하게 한다. 사실은 중공 악당이 기어이 착한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조성된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듣거나 친척, 가족, 친구가 “봐라, 연공 때문에 생활과 직장 등에 지장을 받았으니 연공하지 마라”라고 말할 때마다 매번 당당하게 즉시 그들을 바로잡아준다.

“제가 연공을 잘못해서 지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당이 기어이 파룬궁을 박해했기 때문에 조성된 것이며, 잘못은 저의 연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당의 박해에 있습니다. 저는 연공한 후 사람이 온화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졌으며 가족들 모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받은 후 제 가정이 어떤 지경으로 내몰렸는지 여러분도 보셨는데, 이것이 연공 때문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악당의 박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저의 친척이자 친구인데, 제 편에서고 정의의 편에 서서 악당을 규탄하고 저를 지지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찌 악당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 말하며 저를 한번 더 짓밟을 수 있습니까?”

나의 이처럼 조리 있고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듣고 나면 그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내 가족도 줄곧 진상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평소 말할 때 모두 주의를 기울여 “파룬궁을 수련하기 때문”을 “악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때문”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세인이 중공의 세뇌를 씻어내도록 돕고 세인의 관념도 바뀔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이 오늘날 겪는 고난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때문이며, 죄는 중공에 있다. 우리는 중공의 거짓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악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마치 박해가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악당을 도와 파룬궁수련생에게 연공을 포기하고 진상 알리기를 포기하며 사부님을 배신하라고 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세인이 업을 짓게 하여 그들이 이로 인해 재앙과 응보를 당하게 할 것이다.

개인적인 약간의 건의이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자기도 모르게’라는 말에서 생각난 것

글/ 중국 수련생

[명혜망] 오늘 아침 가부좌할 때, 잡념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사법(邪法)을 연마’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일깨우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不自覺)’라는 말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생겼다.

최근 한 노년 여성 수련생이 나를 찾아와 명혜 라디오방송을 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2년여 전 그녀의 고향 사람을 통해 이 수련생을 알게 됐다. 그때 그녀는 안색이 불그레하고 발걸음이 가벼웠는데, 그 후 두세 번 더 만난 적이 있다. 그 뒤 1년 넘게 만나지 못했는데, 그사이 전화를 한 번 걸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밖에서 일하며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온다고 대답했다. 나는 “연금도 있는데 돈 벌러 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전화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가 이번

에 만나서야 자초지종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수련생의 기혼 외아들이 사업하다 수십만 위안을 손해 봤고, 칠순이 다 된 수련생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일하며 자녀에게 돈을 보태주고 있었던 것이다. 만났을 때 수련생은 안색이 어둡고 정신 상태도 매우 나빠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더는 일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 가지 일을 하는 데 큰 지장을 줍니다”라고 권했다.

집에 돌아와 주변의 노년 수련생들을 생각해보니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가 존재했다. 입으로는 정법노정을 따라가겠다고 말하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이 좋지 않고 자녀들의 경제 사정도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노년 수련생들은 온 힘을 다해 자녀를 돕고 손자·손녀 양육 책임까지 떠맡게 되는데, 어디에 대법을 실증할 충분한 힘이 남아 있겠는가?

오늘 가부좌를 마치고 사부님의 법이 생각났다. 옛사람도 “자손에게는 자손의 복이 있으니 자손을 위해 말이나 소가 되지 말라. 자손에게는 자손의 복이 있으니 자손을 위해 과도한 근심을 하지 말라(兒孫自有兒孫福, 莫與兒孫作馬牛. 兒孫自有兒孫福, 莫與兒孫作遠憂)”라고 알았거늘 노년 수련생은 지금 ‘자손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 만약 자손 때문에 우리가 서약을 실현하는 것을 지체한다면, 우리 자신의 결말이 엄중함은 말할 것도 없고, 자손에게 얼마나 큰 업을 짓게 하는 것인가?!

사부님께서서는 엄숙하게 지적하셨다. “육친정(親情)에 집착함은, 기필코 그로 인해 지치고 얽매이며 마에 사로잡히게 됨이라, 그 정사(情絲)를 잡아 쥐어 일생토록 방해받으니, 나이가 들면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정진요지-수련자 금기)

내 주변의 세 가지 일을 잘하지 못하는 많은 노년 수련생은, 사상에서 언행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접어들어 쇠약해지면서 평범한 사람과 다름없게 됐다. 수련인의 기준은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 되며, “집착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련해야”(정진요지-수련은 정치가 아니다)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법정인간(法正人間) 시기에 무엇을 잃었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인식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베트남 수련생들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베트남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산국가 중 하나다. 만약 현지 수련생들이 법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서둘러 법 중에서 성숙하지 못한다면, 어렵사리 얻은 현지 수련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아래로 밀어내게 되며, 중국공산당(중공)이 베트남에서 허점을 노릴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어렵게 얻은 평화로운 수련 환경은 사부님의 감당과 진정으로 수련하는 수련생들이 가져다준 것이자 베트남 수련생들의 복이기도 하니, 모두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환경 중에서 요고(腰鼓)팀, 대대적인 삼퇴(중공의 3가지 조직 탈퇴) 활동, 관광지 활동 등과 같은 이전의 형식이 사람을 구하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망치는 것인지는 자신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주 분명히 보고 계신다. 출발점이 사심이 없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해 뭔가를 구하려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자문해 봐야 하며, 대법에 비추어 자신이 법 중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즉시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진심으로 착실히 수련하고자 하는 수련생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습관화할 수 있는 일이며,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법을 스승으로 모심’을 배우자

사부님께서는 2018년 11월 27일, 베트남 수련생들의 상황을 겨냥하여 특별히 ‘베트남 수련생들에게’라는 경문을 발표하셨다. 이러한 소중한 지도는 베트남 수련생들의 복인데, 모든 베트남 수련생이 이를 소중히 여기고 암송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경문에서 사부님께서는 자비로운 일깨움과 지도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압력을 전가하기 위해, 중공이 베트남 정부 안에 심어놓은 특무는 금전, 외교, 상업이익을 이용해 파룬궁 수련생을 탄압하도록 베트남 정부를 부추김으로써, 국제사회의 시각을 돌리게 하고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함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조성한 압력을 경감하려 한다. 그런 까닭에 이 비상시기에 수련생들은 냉정해야 하는 바, 지금은 대형 진상 알리기 활동을 개최하지 말 것이며, 더욱이 대항해서는 안 된다.”

“수련은 본래 자아를 수련하고 집착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 개인 법공부와 연공을 위주로 하며, 대형의 법공부와 연공 활동을 조직하지 말라.”

“조용히 관찰해 보라. 누가 사태를 선동하면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디 명심하라.”

최근 몇 달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로 삼퇴를 권하는’ 항목이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는 중공이 봉쇄를 강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수련상에서 심성을 제고하고 공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깨움이기도 하므로 수련으로 돌파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수련생의 수련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몇몇 개인이 약간의 화술로 수련생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추구하는 마음과 감정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사람들을 관광지 등 공공장소로 내몰아 중국 관광객이 집중된 곳에서 피켓을 들고 대면 방식으로 진상을 알리게 했다. 진상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계속 노란색 연공복을 입고 공공장소에서 단체 시연을 하며, 확성기로 아주 비이성적이고 뜬금없이 대법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크게 선포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중 어느 지역의 왕(王)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서 조직하며, 집을 빌려 여러 지역에서 온 수련생들을 집결시키고 매일 중국 관광객이 집중된 관광지로 데려가고 있다. 일부 지역 수련생들은 감정과 압박으로 이에 휩쓸렸으며, 한 때 참여 인원이 수백 명에 달했던 곳도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베트남 수련생들의 수련을 교란했다.

겉으로 보기에 관광지로 휩쓸려 간 사람들은 인원이 너무 많고 형상, 용모, 언행이 수준에 미치지 못해 중국 관광객과 베트남 각지의 관리자들에게 반감을 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련생 자신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법 중에 있지 않아 다른 공간의 사악한 교란을 불러들인 것이다. 만약 상황이 계속 악화된

다면 그 업(결과)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갈등 앞에서 안으로 찾기를 배우자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은 수련의 길이 평탄치 않으며 시험은 항상 있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시험이 닥쳤을 때 자신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지, 법에서 자신을 닦고 제고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혹시 인위적으로 시련을 만든 것은 아닌가?

만약 속인의 마음으로 수련 중에 나타나는 갈등과 혼란을 한다면, 매번 그럴 것이고 매번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련생이 아니라 속인이 되는 것이며, 적어도 매번 법에서 제고할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나 일이 나타날 때마다 모두 즉시 법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식별 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을 닦으며, 이 일에서 자신의 법 인식 부족과 집착심이 드러났는지 보고, 사람 마음과 집착을 제거하며 발정념을 많이 하여 자신과 외부 환경을 정화하고 법공부와 법 암기를 많이 해야 한다. 만약 매번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가 아니라 사부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휩쓸리지 않을 것이며, 나쁜 사람도 풍파를 일으킬 수 없어 사악은 자멸할 것이다.

당문화와 무신론을 제거하자

진심으로 착실히 수련하고 제고하려는 수련생들은 생각해 보라.

베트남은 공산국가이며, 베트남 사람들은 모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세뇌 속에 처해 있다. 수련 후 마음을 고요히 하여 법공부

를 하고 ‘9평 편집부’에서 출판한 책 네 권을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자신의 사상과 행위 속의 오염을 끊임없이 씻어내고 있는가? 자신의 어떤 언행이 무신론과 현대적 관념에 기반하여 습관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자주 살피고 있는가? 아직 이 네 권의 기서(奇書)를 읽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읽어야 한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이지만 유일한 공산국가는 아니다. 중공 치하 중국에서 박해 초기 그 몇 년 동안, 법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법에서 닦지 않은 많은 수련생이 수많은 굽은 길을 걸었으며 그 교훈은 참혹했다. 베트남에서 나타난 혼란은 중국 대륙의 상황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법공부를 많이 하고 명혜망 교류문장(특히 사부님의 평어 문장을 보지 못했거나 이성교류 문장을 거의 보지 않은 경우 서둘러 보충해야 함)을 많이 읽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걸었던 굽은 길을 다시 걸으며 참혹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다면 사부님께서 안내하신 길이 아니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 (전법륜) 형태를 바꾼 미혹 앞에서 수련생들이 ‘법을 스승으로 모심’을 배웠다면, ‘베트남 수련생들에게’ 경문과 대조하여 대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오지 않으면 진정으로 수련하는 수련생이 아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식의 말을 할 때, 혹은 누군가 자유사회(비공산국가) 대법제자들의 방식을 모방하여 단체 활동을 나가거나 대면 진상을 알리라고 할 때, 사부님 경문 ‘베트남 수련생들에게’와 대조해 본다면 즉시 자신이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법이 끝나지 않은 특수한 시기에 베트남 파룬궁수련생들이 “개인 법공부와 연공을 위주로 하는 것”이야말로 사부님

의 자비로운 안배다!

어떤 수련생은 ‘베트남 수련생들에게’라는 경문이 2018년에 발표된 것이라 이미 몇 년이 지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은 우선 법과 사부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자만과 오만은 바로 법공부를 해도 법을 얻지 못했고, 무신론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정법이 끝났는가? 아니다. 경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은 모두 해냈는가? 사람은 신 앞에서 오직 겸손해야 할 뿐이며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자신을 낮추고 허심탄회하며 선의적인 마음으로 진정한 신앙인을 관찰해 보라. 진정한 신앙인이 어떻게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을 경외하는지, 독실함이란 무엇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서를 읽어야 하는지 보라. 특히 올해 명혜망 중국법회의 발언(수련이 비교적 성숙한 대법제자의 교류 문장)을 많이 읽는다면, 자신의 사상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극을 받고 돌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의로 일깨워 드린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사부님과 대법이며, 사부님께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신 설법에 따라 하지 않고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없다. 자신조차 착실히 수련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사람을 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법이 끝나지 않는 한 정법 수련의 기회는 계속 있겠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번의 기회는 잃어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 베트남 수련생들이 법을 배워, 대법을 소중히 여기고 사부님의 안배를 소중히 여기며, 정법 수련의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를 희망한다.

법을 스승으로 삼아 심성 수련을 배우다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베트남의 현재 수련 환경을 논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부님께서 베트남 수련자들의 수련과 진상 알리기 방식에 대해 이미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대상성이 있는 안배를 하셨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모호한 여지도 없다. 만약 누군가 이를 ‘개인 체득에 따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법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사부님께서서는 베트남 수련자들을 위해 특별히 경문 ‘베트남 수련생들에게’를 발표하셨다. 그중에서 사부님께서서는 명확히 지적하셨다.

“그런 까닭에 이 비상시기에 수련생들은 냉정해야 하는바, 지금은 대형 진상 알리기 활동을 개최하지 말 것이며, 더욱이 대항해서는 안 된다. 수련은 본래 자아를 수련하고 집착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 개인 법공부와 연공을 위주로 하며, 대형의 법공부와 연공 활동을 조직하지 말라. 매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든, 모두 냉정해야 하며, 격화되지 말라. 조용히 관찰해 보라. 누가 사태를 선동하면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디 명심하라.”

이 단락의 법은 베트남 수련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정치, 사회와 수련 환경에서 따라야 할 지도 원칙이 직접적으로 제시됐다. 사부님께서서는 경문에서 단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야 할 것’도 분명히 밝히셨다. 즉 개인 수련으로 돌아가 냉정과 이성을 유지하며, 전체 환경의

안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이 경문이 지닌 현실적 지도 의미를 희석하거나 심지어 부정하려 시도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형세가 달라졌다”라고 주장하거나, “시간이 많지 않아 예전 방식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이것은 내가 법에서 얻은 체득이다”라는 이유로 경문의 요구와 상반되는 행동을 공공연히 하는 경우도 있다. 수련인에게 이러한 언행은 매우 위험하다.

우선 이른바 ‘형세가 변했다’는 주장은, 사부님께서 법에서 명확히 지적하고 새롭게 안내하신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사부님께서 이미 내린 지시를 부정하거나 수정할 자격이 없다. ‘형세 변화’를 이유로 경문을 부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법의 기준을 대체하는 것이다.

둘째, 경문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충차가 다르다’거나 ‘체득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수련에서 매우 엄숙한 경계를 혼동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체득은 반드시 법을 위배하지 않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된다. 만약 이른바 ‘체득’이 사부님의 명확한 요구와 충돌한다면, 그 체득은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사오(邪悟, 샷된 깨달음)거나 외부의 교란일 수도 있다.

또한 베트남 수련 환경은 매우 특수하고 취약한 성격을 지닌다. 사부님께서 경문에서 이미 명확히 지적하셨듯이, 중국공산당(중공) 세력이 박해 압력을 다른 나라로 전가하려 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바로 이러한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규모가 큰 활동, 쉽게 ‘대항’이나 ‘정치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행동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전체 수련

자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중생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수련자들에게 ‘베트남 수련생들에게’의 요구를 엄격히 따르는 것은, 정진 여부나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부님과 법을 진정으로 믿는지(신사신법), 법의 편에 서 있는지의 문제다.

아무리 그럴듯한 구실이라 해도 사부님의 명확한 안배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를 듣는 사람은 반드시 냉정하게 법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행동이 과연 법을 실증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실증하는 것인가? 내게 이 일을 보여준 것은 나에게 무엇을 수련하라는 것인가? 내가 어떤 점에서 제고될 필요가 있는가?’

오직 사부님의 안배를 따른다는 근본 전제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할 때, 비로소 베트남 수련 환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으며, 수련자들이 안정되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또한 특수한 시기에 한순간의 생각 차이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중국 수련자는 해외 1인 미디어의 정사(正邪)를 분명히 식별해야

글/ 동남아 수련자

[명혜망] 최근 해외의 일부 수련자가 중국 랴오닝성 수련자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어떤 해외 1인 미디어(유튜브 채널 ‘법××원’)가 대법 수련자가 운영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1인 미디어는 중국 내에서 빈번하게 수련자들을 끌어들이며 팬으로 만들며, 중국 수련자

들에게 채널을 구독하고 그룹에 가입(주의: 이는 팬 그룹[粉絲群]에 가입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일을 토론할 수 있음)하도록 유도해 일부 수련자가 교란을 받게 했다고 한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1인 미디어는 중국에서 해외로 나간 사오(邪悟·삿되게 깨달음)한 자 류(劉)모 씨가 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오한 수련자는 2024년 9월에 이미 현지 불학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은 1년 전에 이미 업데이트가 중단됐지만 폐쇄되지는 않아 이전에 발표된 내용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사오한 자가 해당 채널의 팬 그룹을 이용해 난법하는 것으로 전환해 수련자들의 수련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문제는, 언제나 교란을 받는 사람들이 만약 제때 깨어나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의 비참한 결말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국 수련자 중 일부는 해외와 중국을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으며, 많은 이가 감옥에 간 적이 있다. 그녀들이 현지 불학회에서 통보한 사오한 자와 어떤 연락 관계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대법을 배반하고 사오한 자들[배후는 사실상 중국공산당(중공) 스파이들임]이 해외 인터넷상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인 미디어를 세우고 그룹을 조직해 수련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흔히 대법의 단어를 이용해 교류한다는 기치를 내건다. 어떤 수련자는 무심코 이런 공간에 들어갔다가 제때 빠져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법 안에서 수련할 줄 모르고 사람 마음(人心)이 무거워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사오에 빠지기도 한다.

사오한 자들이 중국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폭로된 내용도 많다. 예를 들어, 12월 14일 명혜망은 중국 수련자의 글 《지금까지도 ‘법에 비취 자신을 수련’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수련생들에게》(<https://www.minghui.or.kr/archives/xiulian/153681>)를 발표해 랴오닝성 모 시의 상황을 폭로했다. 일부 수련자가 사부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법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며, 시간을 아껴 사람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때로 몰려다니는 것이다. 그들은 자주 선양(瀋陽), 안산(鞍山) 등지의 일부 수련자와 모여 서로 연락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식을 마치 법인 양 수련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는 법공부가 적고 법리가 불분명한 일부 수련자에게 심각한 교란과 영향을 주었다.

글쓴이는 또한 이들이 법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 다음의 내용을 언급했다. 대법 수련자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진 촬영을 요구한 후, 컴퓨터로 원만(圓滿)해 비승(飛昇)하는 사진을 합성해 콰이서우(快手)와 위챗 모멘트에 올리는 것이다. 그들은 법공부가 깊지 않은 수련자들을 유혹해 새로운 우주로 갔으며, 이미 원만했으니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지금은 돌아와 수련자들을 구해 정법이 끝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시비를 혼동시켜 일부 수련자에게 그들이 정의한 엄정성명을 쓰게 하며, 성명을 쓰지 않으면 원만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닭을 죽였거나 개를 죽였어도 모두 써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수련자는 원만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그대로 따라 하기도 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난법하는 행위가 해외의 사오한 자들과 중공 특무들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법공부를 통해 말법(末法)의 난세에는 원래 곳곳이 마(魔)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법난(法難)의 시기에 대법 수련자들 속에 섞여 들어온 화란(禍亂)하는 마들도 움직이고 있다.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회는 이미 난잡해졌고, 그 사이트는 이미 무슨 좋지 못한 것들이 다 거기에 뒤섞여서 그야말로 마귀처럼 돌아가고 있으며, 어떤 것이든 들어가면 모두 그 안에 뒤섞이고 그 안에서 혼합되어 사회, 인심, 도덕, 전통을 교란하고 사람의 생활 상태를 개변하고 있다. 물고기와 용이 뒤섞여 있다.”(각지 설법 14-2016년 뉴욕법회 설법)

상황이 이러하므로 해외 수련자이든 중국 수련자이든 모두 인터넷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정념으로 정사(正邪)를 식별해야 하며, 호기심을 품고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석하게 인식해야 한다. 배경이 불분명한 1인 미디어들 중에서 어느 것이 바르고 어느 것이 사악한지 우리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마도 더 많이 있을 것이며, 그것들도 끊임없이 형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와 중국 수련자들에게 법공부를 많이 하고 수련에서 제고해 법으로 정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이다. 이른바 교류 그룹에 가입하지 말며, 사오한 자들이 주입하는 정보를 듣지도 보지도 전하지도 말아야 한다.

난법하는 자들에게 시장을 주지 않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수련기연(機緣)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도 하다. 함께 노력하자.

마음속에 ‘나’는 없고, 눈에는 온통 중생뿐

글/ 산동성 대법제자(본인 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저는 농촌에 사는 대법제자이며 올해 일흔 살입니다. 2012년 9월에 정식으로 법을 얻었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수련했습니다. 수련의 길을 돌아보니 줄곧 저를 보호해주신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몇 가지 측면에서 저의 수련 체험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신기한 득법(得法) 경험

2012년, Z라는 성을 가진 친구가 일 보러 우리집에 왔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에서 저는 그녀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선량한 것을 보고 대법을 수련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련하나요? 당신의 사부님은 누구세요?” 그녀가 사부님의 존함을 말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법이 아직 널리 전해지기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집에서 네가 가장 효성이 지극하다. 내가 한 가지 일을 말해주마. 장차 네가 우리집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네 사부님은 리홍쯔(李洪志)다. 예전에 우리집에는 노란 천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 사부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화대혁명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압수해 갔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명해졌습니다. 속으로는 ‘집안사람들이 나를 그다지 잘 대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구한단 말인가?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종이에 사부님의 존함을 적어 접어서 집 안의 한 상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 일을 떠올리자 저는 지체 없이 Z 친구에게 책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사부님의 법상이 없는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사부님의 책이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사부님의 법상과 존함이 들어 있는 책 한 권을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집에 가져가 한 강(講)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어때요?”라고 묻기에, 저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강을 읽은 뒤 그녀가 다시 물었고, 저는 “이제 더는 안 보려고요. 두 번째 강을 읽고 나서 계속 설사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인연이 있네요. 사부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몸을 청리(淸理)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법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Z는 납치됐습니다. 저 역시 법공부를 찌엄찌엄 하게 됐으며, 수련을 하는 듯 마는 듯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줄곧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만은 지켜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서 장사하던 한 남자가 책 한 권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책이냐고 묻자 그는 대법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공법 동작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고 그는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저에게 공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자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여자이니

남자를 집으로 불러 공법을 배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사부님께 마음속으로 청했습니다. “사부님, 제자에게 좋은 여성 대법제자를 한 분 안배해 주셔서 공법 동작을 가르쳐 주게 해주세요.” 이 소망을 내보내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 대법제자 J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법과 진정으로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J는 저에게 연공 동작을 모두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함께 법공부했으며, 그녀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진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법을 얻은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법을 얻은 뒤 사부님께서는 제 몸을 청리해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심장병이 비교적 심각해 입술이 퍼렇게 변하고 얼굴빛도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얼굴에 혈색이 돌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 외에는 오로지 법공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법리가 끊임없이 드러났고 저는 이 수련의 기회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일분일초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더할 수 없이 단순했고, 입고 쓰는 것도 극도로 소박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를 제도해주신 사부님께 수없이 감사드렸습니다.

2. 마음속에 ‘나’는 없고, 눈에는 온통 중생뿐

1) 산전수전 다 껴으며 중생을 구하다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저는 사부님의 말씀을 듣

고 서약을 실천해 왔습니다. 정식으로 수련에 들어선 시기가 비교적 늦었기 때문에 주변의 수련생들은 이미 모두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 시작하자마자 세 가지 일을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련생에게 전단지 한 장이나 소책자 한 권을 받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두근두근하며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이후 수련생은 전단지를 두세 덩이씩 맡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자료를 나눠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는 혼자서도 상당한 양의 진상 자료를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수련생이 마을이나 아파트 층을 돌며 자료를 배포하고 있었지만, 직접 대면해 진상을 설명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구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료를 나누어 주는 동시에 직접 설명을 덧붙여, 중생들이 진상을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온갖 희로애락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부님의 법을 떠올릴 때마다 수련의 발걸음을 다시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삼퇴 명단에 적힌 이름들을 바라보면, 마음속으로 사부님의 가호(加持)에 깊이 감사하게 됐고,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는 거의 매일 밖으로 나가 진상을 알리며 중생을 구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여자이고 생활도 단순하며 먹고 입는 것도 소박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정진실수(精進實修)에 힘쓰고, 더 많은 시간을 밖으로 나가 사람을 구하는 데

쓰려 했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다 사부님께서 도와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已),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전법륜)라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과정 곳곳에서 사부님께서 늘 곁에 계심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두 가지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한겨울의 어느 날 밤, 수련생 한 명과 함께 진상 스티커를 붙이러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나갈 때 손에 솜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얼어서 마치 고양이에게 물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벗어야 했지만 우리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장 한 장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서서히 손이 차갑지 않게 됐고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준비해 간 스티커를 모두 붙인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춥다는 느낌이 없었고, 마음속에는 인연 있는 사람들이 진상을 보고 복을 얻어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정월 열이렛날 오후 2시쯤의 일입니다. 저는 인연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공원에 나갔습니다. 강가에 이르러 북쪽을 바라보니 두 명의 여성이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이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삼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으며 진상 자료도 건네주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순조로웠고 결국 그 두 사람 모두 삼퇴를 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두 여성 앞에서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제 앞에 와서 멈춘 뒤 어떤 장소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길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 하자 저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동생, 잠깐만요. 꼭 전해 드려야 할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자 그는 멈춰 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제가 평안을 빌어 드리고 나서 가세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파룬따파가 얼마나 좋은지,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왜 파룬궁을 탄압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호신부(護身符)에 적힌 아홉 글자를 보여 주며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면 우주의 바른 에너지와 연결되어 그 에너지가 몸을 관통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좋아진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과 인재(人災)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는 중국공산당(중공)의 무신론적 폭정 통치하에서 세태가 날로 나빠지고 도덕이 크게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하늘은 인간세상을 볼 때 경제가 번영했는지를 보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좋은지를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빠지면 인간세상의 재난도 많아집니다. 이 아홉 글자를 기억해야만 인류의 큰 재난을 넘길 수 있고, 아름다운 미래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쁘게 진상 자료를 받아 들였습니다. 저는 또 중공의 사악함과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있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당·단·대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일부가 되어 연루될 수밖에 없으며, 오직 진심으로 탈퇴해 선한 편에 서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순조롭게 삼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진상을 아내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래야 아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

다. 저는 “그렇다면 대신 삼퇴를 해 주세요. 그것도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 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대신해 소년선봉대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구하라고 하신 분은 제 사부님이니 제가 아니라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이라고 말하며, 매우 기쁜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10여 년간 사람을 구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부님의 불은(佛恩)이 한없이 크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2) 자아를 내려놓고 자각적으로 정체(整體)에 협조하다

몇 해 전,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박해가 발생해 한동안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운 듯한 느낌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함께 법공부하던 수련생들과 평소 자주 왕래하던 수련생들이 잇따라 납치됐습니다. 저는 성격이 비교적 강한 편이라 보통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그때는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박해를 해체하는 정념(正念)을 발하는 한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저는 박해당한 수련생들이 정념으로 고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사부님께 가호를 청했고, 현지 수련생들이 하나의 정체(공동체)를 이루어 박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 큰 시련 앞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머릿속에 사부님의 법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일이 바로 당신의 일이며, 당신의 일이 바로 그의 일이다.”(각지 설법2-2002년 워싱턴DC법회 설법) 그렇습니다. 대법제자는 하나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부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반드시 수련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자료점이 파괴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중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박해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이 공백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부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중생을 품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자료를 인쇄할 수 있는 한 수련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대대적인 검거로 인해 그 수련생은 기계를 숨겨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련생과 교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사악한 박해의 목적은 우리의 수련 환경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뜻대로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언니의 프린터도 대법의 한 입자이고, 역시 대법을 위해 온 거예요. 인쇄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도 분명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언니는 1999년 이전부터 수련해 온 노(老) 대법제자로, 오성(悟性)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인쇄에 동의했고 중생을 구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이 역할을 맡아 ‘바통’을 이어받았고, 그 결과 자료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대법 항목 현장으로 갔습니다. 박해로 인해 해당 일을 맡고 있던 수련생이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다른 몇몇 수련생들을 조율해 중생을 구하는 그 일을 이어서 완수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수련생들과 교류하면서 저는 “우리는 모두 사존의 제자이니 사부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율해야 할 일이 많아 저는 거의 쉴 틈 없이 연속으로 뛰어다녔고, 식사를 거르

는 경우도 잦았으며 때로는 세수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부님의 가지(加持) 속에서 마침내 우리 지역의 중생 구도 활동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3. 집안의 가족 중생을 구하다

저는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머니라는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딸을 하나의 중생으로 바라봤습니다. 목적은 오직 이 사람을 구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딸 앞에서 제대로 한 차례 수련하며 자신을 닦았습니다. 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딸이 그중 한 아이입니다. 아이의 언니와 남동생은 모두 대학에 진학했지만 이 딸만은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딸은 늘 제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며, 자주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최대한 그녀의 아이를 돌봐주며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자주 집요하게 저를 몰아붙였고 마치 적을 대하듯 했습니다. 얼마 전 한 차례 오해로 인해 딸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상태로 우리집에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으며, 저를 자신의 공사 현장으로 억지로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간 뒤로 딸은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소처럼 일했습니다. 빨래와 식사를 도맡아 했는데 딸과 아이의 속옷, 양말 등을 모두 저에게 맡겼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세탁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한겨울에 야외에서 손빨래를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제 손은 갈라져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저는 대법 속에서 자신을 바로잡으려(안으로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의 사무실에 가서 잠

시 앉아 쉬려고 했습니다. 침대에 앉자 딸은 제가 더럽다며 침대를 더럽힌다고 했고, 의자에 앉으면 제가 의자를 옮겼다며 불평했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도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문밖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데 딸이 밖으로 나오더니 차에 가득 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빗는다며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한번은 제가 조금이라도 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자, 딸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찌르며 저를 욕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사부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부님의 법이 다시 한번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딸을 원망해서는 안 되며, 딸 역시 제가 구해야 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어느 생, 어느 세에서 제가 딸에게 빚을 졌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딸이 저를 대신해 업력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 어쩌면 저를 제고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신의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스승으로 삼아 법 속에 녹아들고, 후천적인 관념을 내려놓으며, 근본 집착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착실히 수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혹 속에 있는 이 아이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착실히 수련해야 하며 반드시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딸을 대해야 합니다. 반드시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딸이 보게 해야 합니다. 딸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루 종일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애야, 고맙구나. 네가 나의 심성을 제고해주었구나. 네가 날 대신해 업력을 감당해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너도 많이 힘들었지.” 딸은 멧쩍은 듯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쁘게 대했는데도 고맙다고 하시니…그만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 딸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고 법을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부님의 법상을 모셔오자고 했으며 지금도 자주 과일을 사서 사부님께 공경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딸은 성격이 그다지 온화하지 않아 남편과 아이에게 자주 화를 냈고, 두 사람 모두 딸을 조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사위가 외지에서 돌아와 딸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딸을 이렇게 크게 바꿔 놓으셨으니 정말 큰 단계로 제고하신 겁니다.” 저는 사위에게 이것은 대법의 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그동안 줄곧 대법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아내의 큰 변화를 직접 보고 대법을 인정하게 됐고, ‘삼퇴’를 하여 평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설을 앞두고 사위가 4만 2천 위안을 들여 저에게 금팔찌 하나를 사 주었습니다. 딸은 제가 대법을 수련하며 연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연꽃 세 송이가 달린 팔찌를 사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물건들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통해 수련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제가 대법을 수련하는 것을 지지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의 무량한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한 차례 고비를 넘는 과정에서 구세력의 개입을 보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에 생사에 관한 큰 고비를 한 차례 넘겼다. 그 과정에서 나는 구세력의 개입을 보았고, 또한 사부님께서 사악한 것을 소멸하시는 모습도 보았다. 과정은 매우 긴박하고 놀라웠다. 이를 글로 써서 수련생들과 나누려 한다. 이를 통해 구세력의 개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대법제자들이 구세력의 개입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인식을 갖고 제때 구세력의 박해 요소를 제거하여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 수련생은 여성이지만 외모나 복장, 행동 면에서 모두 매우 남성적이었다. 1999년에 베이징에 가서 법을 실증한 뒤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좋지 않은 행위를 한 적이 있었고, 이후 엄정성명을 썼다. 대략 2006년쯤에 나와 그녀는 함께 살았다. 어느 날 내가 머리를 빗고 있는데, 무심코 그녀가 내가 머리를 빗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상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됐고, 그것이 나를 매우 불쾌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일들로 인해 우리는 헤어지게 됐다. 오랫동안 그녀는 거의 나 한 사람하고만 접촉해 왔다. 대략 2013년쯤에 한 번은 어머니가 그녀를 보고 나에게 “그 젊은이가 너를 쫓아다니느냐?”라고 물으셨다.(나와 그녀는 모두 미혼이었다.) 나는 “엄마, 저 사람은 여자예요. 다 큰 처녀라고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리 봐도 젊은 남자처럼 보이는데”라고 하셨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부님께서 여러 차례 나를 일깨워주신 것이었지만 나는 모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올해 상반기에 그녀는 B 수련생과 접촉하게 됐고,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으며 왕래도 잦았다. 8월 어느 날, 우리 셋은 함께 법공부를 하기로 약속했다. 만났을 때 A는 내가 젊고 예쁘다고 칭찬하며 내 얼굴을 만지면서 “어머, 이 작은 얼굴 좀 봐”라고 말했다. 나는 조금 화가 났다. 그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보다 열 살 넘게 많고 이미 60세가 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동성애자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몹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분이 좋기도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기분이 좋았던 것’이 난을 불러온 것이었다. 그 뒤 며칠 동안은 자동차 소리만 들려도 혹시 그녀의 차가 온 것은 아닌지 급히 창가로 달려가 보았고, 며칠 동안 보이지 않으면 그녀의 직장까지 찾아가곤 했다. 나는 점점 정상적이지 않게 변해 갔다. 나중에는 그녀를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됐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다. 나 자신도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사부님의 법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부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를 구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여쭙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갔다. ‘동성애’. 나는 깜짝 놀라고 두려워졌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평소에도 그녀의 남자 같은 태도가 오히려 몹시 싫었는데 말이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사부님께 일깨워 달라고 간청했다. 그날 꿈에서 전생의 인연을 보게 됐다. 그 생에서 나는 한 장군이었고, A는 그 장군을 사모하던 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장군은 줄곧 전쟁터에 있었고, 그 여인은 장군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무공

을 익힌 뒤 남장을 하여 군에 들어가 전투에 참여했다. 그녀는 부장(副將)으로 승진해 장군과 함께 싸웠고, 결국 장군을 대신해 화살을 맞고 죽어서야 장군은 그녀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생에서 A는 13~14세 때 한 차례 괴롭힘을 당한 뒤부터 남장을 하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남자처럼 만들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이런 생각은 아마도 그 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수련인으로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 같지도 않은 이런 변이된 심리와 행동을 오래도록 제거하지 않자 결국 좋지 않은 것들을 불러오게 됐다. 나는 천목으로 그녀 몸에 좋지 않은 영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발정념 할 때 갑자기 그녀가 다음 날 오기로 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까?’라고 생각했다. 바르지 못한 생각이 박해를 불러왔다. 나는 A가 화장실 문 앞에서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을 보았고, 내 원신이 나가 그녀를 따라갔다. 화장실 문 앞에 이르자 그녀는 북쪽 문 쪽으로 스치듯 가더니 사라졌다. 나는 속으로 ‘화장실에 북쪽 문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며 망설이다가 천천히 앞으로 세 걸음 걸어갔다. 그 순간 발밑의 바닥이 갑자기 갈라지며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여기가 어디지?!”라고 크게 외쳤다. 어떤 목소리가 “지옥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즉시 사부님께 살려 달라고 외쳤다. 그러자 사납고 험악한 목소리가 “누가 네 사부냐?”라고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리홍썸 사부님이 내 사부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며 “리홍썸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크게 외쳤다.

바닥에 거의 닿을 즈음, 커다란 입을 벌리고 나를 먹으려는 악어 떼가 보였다. 나는 너무 놀라 급히 “사부님 저를 구해 주세요, 리홍

쫄 사부님 저를 구해 주세요!”라고 외쳤다. 바로 그 순간, 양옆에서 몇 개의 나무판자가 합쳐지며 나를 단번에 받쳐 주었다. 큰 악어 하나가 나무판자를 물자마자 죽었고, 또 하나도 나무판자에 닿자 곧바로 죽었다. 다른 악어들은 즉시 그 두 마리의 죽은 악어를 먹어 치웠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저층 생명이 고층 생명의 안배를 파괴하면 곧 죽는다.’ 나는 악어들이 죽은 악어를 먹는 장면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사부님, 저는 동성애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라고 크게 외쳤다. 그러자 나무판자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면에 거의 다다르자 갑자기 나를 위로 튕겨 올렸다. 입정에서 깨어난 뒤 나는 너무 놀라 거의 쓰러질 뻔했다.

이 일은 두 달 전의 일이라, 몇몇 내용은 순서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 뒤 나는 소파로 기어 올라가 발정념을 했다. 그때 한 구신(舊神)과 사부님의 법신이 나누는 대화를 보았다.

나쁜 신이 말했다. “그녀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이 법문은 어떤 마음이 나오면 그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 다른 구신이 말했다. “그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건 다 너희가 한 짓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사부님께서 손을 한 번 휘두르시자 몇몇 나쁜 신들이 소멸됐다. 마지막 그 나쁜 신이 말을 마친 뒤, 사부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한 번 바라보셨는데, 그것은 곧 녹아서 사라져 버렸다. 그때 내가 든 생각은, 사부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는 모두 소멸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천목으로 보니 그 며칠 동안 A를 떠올리기만 하면 울게 된 것은 나쁜 신이 큰 주사기를 들고 내 머리 위에 미혹의 안개를 뿌렸기 때문이었다. 한 번 뿌리면 나는 그녀를 생각하게 됐고, 그녀를 생각하면 곧바로 울었다. 거의 두 달에 가까운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나는 매일 밖으로 나가 진상을 알렸다. 평소에는 하루에 스무 명, 서른 명 정도 삼퇴시키던 것이 난이 나타난 뒤에는 하루에 열 명 남짓, 어떤 날은 몇 명밖에 삼퇴시키지 못했다.

이 과정 중에는 사람을 몹시 두렵게 만드는 방해가 매우 많았다. 결국 사부님께서 구세력과 나를 박해하던 A의 형상을 한 사마(邪魔)를 소멸해 주신 뒤에야 나는 이 관을 넘겼다고 느꼈다. 전체 과정에서 나는 난을 한 번 겪을 때마다, 그리고 그 인과 관계를 알게 될 때마다 모두 B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B가 A를 도와주기를 바랐고, 그녀 또한 교란을 받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B는 꿈이나 천목으로 본 것들을 믿지 않았다.

그 직후, 막 관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에 나는 꿈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붙이다 보니 어느 천국세계에 이르렀다. 나는 속으로 ‘여긴 어디지?’ 하고 의아해했다. 그러자 한 무리 신들이 이곳은 B의 천국세계라며, 자기들의 왕을 도와 달라고 나를 불렀다고 말했다. 나는 “너희 왕이 누구냐?”라고 물었다. 대리 왕(임시로 그렇게 부르겠다)은 나와 함께 한 고층 건물의 창가로 날아가 안을 보게 했다. 방 안에서는 A와 B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B는 몸을 앞뒤로 젖힐 정도로 크게 웃고 있었고, A의 몸에 붙은 나쁜 것은 B에게 흰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다. B는 매우 편안한 모습으로 계속 “깔깔” 웃고 있었다.(사실 두 사람이 평소 함께 있을 때도 자주 이런 상태였다.)

나와 대리 왕은 그곳을 떠나 다시 그의 세계로 돌아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관을 넘을 때, 전 우주에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었고 모두가 당신을 위해 조마조마해했습니다. 당신이 이 관을 넘자 전 우주의 생명들이 모두 기뻐했고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그때 내가 느낀 것은 대법제자가 관을 잘 넘지 못하면 그들은 모두 ‘에휴’ 하고 탄식하고, 관을 넘으면 모두가 ‘정말 대단하다’고 여긴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그들의 왕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도와줄 수 없어요. 너무 오만하고, 너무 독선적이에요”라고 말했다.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하자 대리 왕과 그 세계의 신들이 모두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 신들이 절망 속에서 우는 그 울음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고, 나 역시 크게 감동되어 함께 울었다. 나는 급히 “울지 마세요.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제야 일어났다.

나는 갑자기 A가 떠올라 그녀의 천국은 어떤지 물었다. 대리 왕은 한숨을 쉬더니 손을 저었고, 나는 A의 세계를 보게 됐다. 그곳에는 매우 야위고 옷이 너털너털한, 몹시 늙은 대리 왕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릎의 살은 모두 사라져 하얀 뼈가 드러나 있었고, 허벅지는 피로 가득했다. 그의 뒤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백골이 펼쳐져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이 쏟아져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꿇고 있었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만 년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어서 일어나세요. 계속 이렇게 꿇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왕을 대신해 속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깨

닫고 나면 더 빨리 수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그녀는 아직 구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 대리 왕은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일념을 바로 잡고 그 영체의 통제를 원치 않고 스스로 진정으로 수련하기만 하면, 그 존재는 즉시 해체될 것이고, 우리 세계도 곧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A와 교류한 후, 이번에는 A가 내 말을 받아들였고 마음이 무거워 보였으며 이 일을 매우 중시했다. 나는 이 일이 일단락됐다고 느끼고 내려놓았다. 대략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또 하나의 꿈을 꾸었다. 막 누워 잠이 들자, 아기처럼 생긴 네 명의 신이 내 침대 앞에 와서 합장하며 “천국세계에서 초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작은 꽃 장식의 천거(天車)가 있었고, 앞에서는 두 명의 아기 모습의 신이 끈을 끌고, 뒤에서는 두 명이 밀고 있었다. 내가 천거에 오르자 한 아기 신이 내 머리에 화관을 씌워 주었다. “속속”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나는 한 천국세계로 이끌려 갔다. 그곳은 A의 천국이었다. 멀리서부터 징과 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다. 그 세계는 너무도 아름다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대리 왕이 나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리 왕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무릎을 보았다. 연한 붉은색의 새살이 막 돌아나고 있었다. 내가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근심하고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 왕의 뒤에 있는 그 나쁜 것이 아직 죽지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녀의 공간장에 머물며 기회를 노려 다시 달라

붙으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급해지는 순간, 잠에서 깬다.

다음 날 나는 다시 A를 만나러 갔다. A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보기에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일들은 구세력이 연화(演化)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생생한 것이었다.

이 일이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점은 이렇다. 여러 해 동안 A는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세 가지 일도 모두 하고 있었으며 또한 꽤 잘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공간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형상이 존재하며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일에서 얻은 교훈은, 사상(생각)이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배척하고 제거해야 하며, 이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다. 처음에 나쁜 신이 굶은 관 같은 것을 들고 내게 미혹의 안개를 뿌려, 그녀를 생각하면 울게 되는 바르지 못한 상태가 나타났을 때, 나는 내 주변에 몇 명의 호법신(護法神)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나를 상대하지 않았다. 내가 “나는 그녀를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호법신들이 즉시 그 사신의 두 팔을 등 뒤로 비틀어 잡아 사부님 앞으로 끌고 갔다.

수련은 너무나도 엄숙하다! 정말로 매우 엄숙하다!

위의 내용 가운데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이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어떻게 자신을 계속 정념 상태에 있게 할 것인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수련할 줄 몰랐고 대법에 대해 단지 감성적인 인식만 있었으며 대법이 좋다고만 느꼈지 머릿속에는 정념(正念)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법공부가 강화됨에 따라 천천히 일에 부닥치면 안으로 찾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점차 생활 속에서, 일사일념(一思一念) 중에서 자신을 대법제자로 대하게 됐고, 정념으로 당면한 일과 행위의 선택을 해결할 것을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것이 정념인지 인념(人念)인지, 신(神)이 되기를 선택할 것인지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세 가지 일에 대한 교란과 영향이 매우 큼니다. 법공부를 잘하지 못해 법을 배워도 법을 얻지 못하게 되고, 마땅히 제고해야 할 시간에 제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낭비해 버리게 됩니다. 수련의 기초를 잘 닦지 못하면 다른 모든 방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사람이 우리가 잘 수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우리가 법공부를 잘하면 우리 공간장의 중생들이 대법에 동화되어 구원받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진상을 알리는 중생은 우리가 제대로 했기에 그들 배후의 사악(邪惡)이 제거되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려 한다면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발정념에

대한 교란은 바로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인데,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질주하듯 산만해 단 몇 초만 집중해도 곧 판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불법신통(佛法神通)의 위력을 최대한도로 펼쳐낼 수 없게 되며, 우리가 맡은 사악이 제거되지 않아 도리어 우리의 수련을 교란하고 중생 제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사부님의 부담과 감당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념이 강할수록 세 가지 일은 더 잘 될 것이며, 더 많은 중생이 구원받을 것인데 이는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악순환이 되면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훼손되는 중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세 가지 일을 할 때만 정념이 있어야 함을 알 뿐, 평소에는 여전히 속인과 같아 자신의 수련을 느슨히 하고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속인 사회에서 생활하며 제가 부딪힌, 정념에 대한 가장 큰 장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왔습니다.

1. 가장 큰 것은 바로 안일심

평소에 할 일을 마치고 나면 긴장을 풀고 쉬고 싶어 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놀거나,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새로운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휴대폰은 아마도 구세력(舊勢力)이 중생을 훼손하기 위해 만든 가장 큰 마귀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연골산(軟骨散, 뼈를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가루약)과 같아서 일단 손에 들면 다시는 내려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모든 집착심을 만족시키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 항상 온갖 앱(App)이 당신을 만족

시키고 유혹하며 즐거움을 줍니다! 긴장을 풀고 즐기다가 결국에는 즐기다 죽게 됩니다(娛樂至死). 휴대폰을 끊지 못하면 시시각각 정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神)은 휴대폰을 갖고 놀 수 없으며 휴대폰을 손에 드는 순간부터 타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수마(睡魔)입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잠시 쉬고 싶을 때 눕고 싶어 합니다. 한번 누우면 몸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 잠시 자고 싶어 합니다. 한번 자면 한두 시간이 지나가고, 깨어나서도 30분 정도는 비몽사몽하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발정념 시간을 놓치고 연공 시간을 미루는 것입니다. 한번 미루면 다른 일에 부딪혀 그날 연공을 다 마치지 못하게 되고, 몸이 전환되어야 할 부분이 전환되지 않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게으름인데,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모든 일은 대충 하면 된다는 생각, 미루는 습관도 게으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모든 행동이 자신이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것인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삶는 격이 됩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죽음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2. 사상업(思想業)의 교란

최근 제 머릿속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원망입니다. 멀거나 가까운 과거의 일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공통점은 모두 저에게 잘해주지 않았거나 저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원망이 생기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주의하지 않고 그 생각에 따라가면 끝입니다. 혼자 한참 화를 내다가 그제야 경각심을 갖고 그런 교란을 제거하지만, 여전히 때때로 머릿속에 이런 일들이 떠올라 근절되지 않습니다.

3. 망념(妄念)

바로 당장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머릿속에서 계속 일의 배치, 계획 등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하거나 긴장하거나 기뻐하거나 과시하거나 다투는 등의 정서가 생겨납니다. 혼자 상상 속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며 서로 다투는 상황을 만듭니다. 망념이 많다는 것은 사실 여전히 집착심이 너무 많고 내심이 청정하지 못해, 어떤 일도 자신을 교란하게 되며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갈등이 생겨 손해를 보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마음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작은 일들도 마음에 두지 않아야 비로소 청정무위(淸淨無爲)를 이룰 수 있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일 하나라도 판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루 시간을 계산해보면, 발정념 1시간(다른 발정념 시간은 제외), 연공 2시간 반, 법공부 2시간(개인에 따라 다름) 외에도 나가서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며, 명혜망 문장을 읽어야 하고, 직장과 학업, 집안일 등 전혀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을 느슨히 하기만 하면 필연적으로 세 가지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이것이 부족하거나 저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정말로 잘하는 대법제자들이 존경스러운데, 그들은 늘 정진하는 상태를 유지하며 해이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잘 해낸다면 중생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고, 사부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수련 시간을 연장하시느라 그토록 거대한 감당과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생에 법(法)을 위해 왔고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

기(助師正法) 위해 왔습니다. 억만년을 걸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표현에서 매일 가장 정수(精髓)가 되는 시간, 자신의 활력이 가장 충만한 시간을 법공부에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생활의 배치는 대법을 최우선으로 두고, 매사에 법을 중요시하며 매사에 법으로 가늠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사부님을 존경하고 법을 존경하는(敬師敬法) 표현입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확고하게 해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의지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의지를 느슨히 하지 말며 정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일사일념 모두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휴대폰 등 자신의 정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부 사물을 끊어야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연락이나 쇼핑 외에는 시야에서 멀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마귀로 보인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분명 첫 생각은 그것을 멸해버리는 것일 겁니다. 다음으로 원망심 등 현재 두드러진 집착심 제거를 강화하고, 이 방면의 심성 수련에 비중을 두며, 법을 많이 외우고, 제때에 세 가지 일을 잘해야 하며, 미루지 말고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것은 늘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매번 며칠간 정진하여 모든 상태가 매우 좋을 때면, 항상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나 당신을 교란합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고 나면 또 며칠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마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어떻게 도로의 장애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중에 보이는 ‘풍경’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세력은 각종 눈속임을 만들어 우리를 교란할 것이며,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더욱 정념을 확고히 하고, 사부님의 요구대로 계속해서 달려가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하여 사부님께 걱정을 덜 끼쳐드리겠습니다.

마이다네크 강제수용소에서 ‘문화대혁명 박물관’까지

글/ 혜우(惠友)

[명혜망] 한 개인은 오직 자신을 성찰하는 데 능할 때에야 더 이성적이고 성숙해지며 인격은 완성의 경지에 이른다. 한 국가와 한 민족 역시 오직 과거에 겪었던 고난을 직시할 용기가 있을 때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운명은 당신들을 위한 경고이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독일 나치는 유대인 말살을 실행하기 위해 아우슈비츠(Auschwitz) 등 수많은 강제수용소를 설립했으며 아우슈비츠에서만 약 110만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된다. 마이다네크(Majdanek)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강제수용소다.

마이다네크 강제수용소는 폴란드 루블린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1941년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한 시기에 설립됐다. 누적 기준으로 26개국 출신 약 50만 명의 시민이 이곳에 수감됐고 피해자들에게 강제노동과 체계적인 대량 학살이 자행됐다. 학살 대상은 유대인, 폴란드 지하 저항조직 구성원, 소련 전쟁포로 등이었다. 이 강제수용소에서 사망한 수감자는 무려 36만 명에 달한다.

1944년, 이 지역이 해방된 뒤 일부 가스실과 화장로, 유골탑, 막사 건물 등이 보존돼 국가 박물관이 됐다. 마이다네크 강제수용

소 유적에는 아직도 만인묘(萬人墓) 한 곳이 남아 있으며 그 거대한 아치형 돌 지붕 위에는 한 줄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우리의 운명은 당신들을 위한 경고이다(Łos nasz dla was przestroga).”

‘문화대혁명 박물관’: 실현될 수 없는 꿈

1949년 이후 중국공산당(중공)은 거짓과 폭력에 의존해 전체주의 통치를 유지했고 중화민족은 역사상 가장 암흑 시기로 들어섰다. 정치운동이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생명이 도탄에 빠졌으며 중국 현대사는 억만 민중의 피와 눈물이 스며든 기록으로 남았다.

토지개혁, 반혁명진압, 삼반·오반, 대약진, 반우파 운동을 겪으며 아직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사구(破四舊, 낡은 것 네 가지를 타파)’하는 운동과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건, 파룬궁 박해라는 피비린내 나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이른바 문혁의 정식 명칭은 ‘문화대혁명’이다. 1966년 5월 16일 중공은 중국인의 마음속에서 중화 전통문화를 말살하려는 목적의 정치운동을 발동했다. 사찰과 도관(道觀), 불상과 불경이 철거되고 파괴됐으며 명승고적과 서화·골동품은 모조리 훼손됐다. 전통문화는 ‘우매하고 낙후됐다’, ‘봉건 미신’이라는 오명을 썼다. 전국 곳곳에서 무력투쟁과 공개 비판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모두 생존을 걱정해야 했으며 천지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부부는 등을 돌렸고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해쳤으며 인간 윤리가 파괴된 비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0년 문혁 기간에 지식 계층은 허리가 꺾였고 진리와 상식을

버린 채 양심에 반하는 태도를 밝히며 굴욕을 견디며 연명했고, 더 이상 사회의 양심과 정의의 중추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냉혹해졌고 서로를 경계했으며 인간성은 왜곡되고 음울해졌다. 선량함과 정직함, 너그러움과 호방함, 소박함과 문명이라는 정신적 기질은 완전히 사라졌고 세태는 날로 악화했으며,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옛 풍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은 중국인의 인문 사상과 도덕관념, 인생 가치를 철저히 전복시켰고 그 전례는 역사상 없었다.

대재앙이 지나간 뒤 정신문화가 폐허로 변한 잔해를 마주하며 지식계와 광범한 민중 가운데 아직 양심을 지닌 사람들은 고통스럽고도 깊은 성찰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중공은 전력을 다해 억압하고 봉쇄하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각종 제한을 가했다. 그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민중의 각성이며, 민중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청산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1978년부터 1986년까지 만년에 접어든 작가 바진(巴金)은 『수상록(隨想錄)』을 집필했다. 그는 한 지식인의 양심으로 역사를 성찰하며 진정성 있게 도덕적 참회를 했다. 바진은 ‘문화대혁명 박물관’ 설립을 주장해 자손 후대가 그 참혹한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공산 극권 통치 아래에서 끝내 실현될 수 없는 꿈으로 남았다.

진상과 용기: 세상에 각성과 빛, 희망을 가져오다

1992년, 중화 전통문화의 정수와 보편적 가치를 응축하고 ‘진선인(眞·善·忍)’을 근본 종지로 하는 파룬불법(法輪佛法)이 세상에 전해졌다. 질병을 제거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놀라운 효과와 도

덕을 높이는 강력한 호소력으로 불과 7년 만에 수련자가 1억 명에 달했다. 중공 당수 장쩌민(江澤氏)의 질투에 찬 음울한 심리와 ‘하늘과 땅은 물론 인간의 사상까지 통제하려는’ 중공의 극단적으로 사악하고 광적인 본성이 결합해 수억 민중을 겨냥한 잔혹한 박해가 발동됐다.

국가 전반의 선전 도구가 총동원돼 거짓을 만들어내고 비방과 모함을 일삼았다. 노동수용소와 감옥, 세뇌반, 정신병원 등 폭력 기구는 백여 종에 달하는 고문 수단을 선량하고 무고한 민중에게 가했으며, 나아가 대규모이자 체계적인 파룬궁수련자 대상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인류사에 유례없는 반인륜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 전례 없는 대재앙은 현재까지 26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중공 악마에 직면해 억만 파룬궁수련자들은 굳건히 서서 쓰러지지 않았다. 그들은 진상으로 거짓을 몰아내고 선량함으로 잔혹함에 맞섰으며, 비범한 용기로 인류의 사고를 일깨워 공산 극권 악 세력의 진면모를 분명히 인식하게 했고, 중국 민중과 세계인의 역사적 각성을 이끌어냈다.

2004년, 『9평공산당(九評共產黨)』(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이 세상에 나와 공산주의 사설(邪說)과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 그리고 인류에 끼친 막대한 해악을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분석해 폭로했다. 이어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 『마귀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한글판: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해체 당문화』 등 종소리처럼 울리는 사상적 역작들이 잇따라 출간됐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의 당·단·대 조직을 탈퇴하는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의 거대한 물결이 일었고 2025년 말까지 각계각층에서 각

성한 중국 민중 4억 5천만 명이 공산악당을 버렸다. 최악이 하늘에 사무친 중공의 멸망은 눈앞에 다가와 있다.

가장 어둡고 가장 흑독했던 세월 속에서 억만 수련자의 인내와 불굴의 정신, 잔혹한 폭압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흔들림 없는 신념은 세계에 빛과 희망을 가져왔다. 이 역사는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우며 비장했기에 인류가 세세대대로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 12월 13일과 14일, 호주 파룬궁수련자들은 퍼스시 엘런브룩 지역과 밴버리시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각각 참가해 지역 주민들의 환영과 사랑을 받았다. 파룬궁 단체는 밴버리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서 퍼레이드 부문 우승을 차지했으며 상금 1천 호주달러를 받았다. 파룬궁 수련자로 구성된 선녀팀, 요고팀, 깃발팀, 용춤팀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으며 분위기는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특히 위엄 있고 기백 넘치는 황금용이 관중들과 상호작용하며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90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614만 4863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